

고대 일본의 문자문화 전개와 한국계 이주민에 관한 연구*

이창수**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V. 문자문화와 동아시아 문명
수용 |
| II. 발굴문자를 통해 본 문자문화 | VI. 고대 일본의 문자문화와
한국계 이주민 |
| III. 철검 명문과 한문문화 | VII. 맺음말 |
| IV. 한자문화의 확산과 전개 | |

| 논문요약 |

고대 일본은 동아시아 문명의 소통수단이었던 한자문화의 유입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구가한다. 그리고 문자 도입 및 활용에서 대표적인 상대 문헌의 성립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계 이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본 논문은 고대 일본에서 한자문화 유입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발 굴문자와 상대 문헌에 나타난 일본의 지식수준과 그 작업에 직접적으로 가 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계 이주민들의 활약상을 도출해 본 것이다.

먼저 발굴문자에 나타난 고대 이전 일본의 문자문화는 중국 또는 한반도 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명권하에 전개된 문자의 소통과정에서 이용된 것이 라 할 수 있으며 일본열도의 국가나 사회의 성숙과 관계없이 외부에 있었던 특수기호로서 국제관계라는 한정된 장에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토사료와 문헌상에서 볼 때 문자가 지방에까지 통용되고 그에 따른 문자문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는 7세기 후반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일본열도 각지에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문자문화는 동아시아 선 진 문명과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적으로 수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 이 논문은 2013년도 경희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HU-20130111).

**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부교수.

것은 고대 일본사회에 한국계 이주민들의 활약이 단순히 실무적인 기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앙과 지방에서 학문과 그를 바탕으로 한 문자문화와 정신세계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상대 문헌 성립에는 문자의 도입이후 고도의 문자 활용 능력과 지식, 그리고 문장력을 지닌 한국계 이주민의 활약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주제어: 한자문화, 고지키(古事記), 니혼쇼키(日本書紀), 도래인(渡來人), 한국계 이주민

I. 머리말

고대 일본은 동아시아 문명의 소통수단이었던 한자 문화의 유입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구가한다. 그러한 문자문화의 축적된 결과가 8세기 초에 성립된 현존 최고(最古) 문헌인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라 할 수 있다. 이들 문헌에는 주지하다시피 모두 한자를 기본으로 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고 내용 면에서 보더라도 고대 중국 및 한반도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한적(漢籍) 문헌들의 내용이 곳곳에 인용되어 있다. 더군다나 양 문헌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천황가를 비롯한 고대 야마토(大和) 조정이 율령체제를 도입하며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로 발전할 때 국정운영의 핵심을 천황가의 존귀에 두고 당시 조정의 기반세력인 주요 호족들도 자가 전승을 문헌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 한자문화의 유입과 내부 확산과정을 거쳐 고대 왕권 확립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시켜 이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치세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 정신세계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작업은 고대 중국 또는 한반도와의 교류 및 영향을 받아 문자의 활용과 문헌 습득 능력이 뛰어난 한국계 지식인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업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의 상대 문헌인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도 일본열도에 문자문화를 전파한 이른바 ‘도래인(渡來人)’ 또는 ‘귀화인(歸化人)’으로 표기되어 있는 한국계 이주민들과 그의 후손의 활약상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예들 중에는 문자의 도입 이후 조정 내에서 문필전문가로 활약하며 고대 왕권국가의 기틀과 문화 사업에 크게 기여한 자들이 적지 않게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古事記』와 『日本書紀』는 일본열도에 문자를 전하고 긴 역사과정을 통해 이를 활용하고 변용시킨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창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록과 관념의 작성에는 동아시아문화 운반자이자 당시 야마토 조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문필력을 발휘한 한국계 이주민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대 일본에서의 한자문화 유입과정을 문헌 성립 이전의 발굴문자와 문헌상에 나타난 문자문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문자문화의 전개와 확산과정에서 나타난 고대 일본의 지식수준과 그 작업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계 이주민들의 활약상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II. 발굴문자를 통해 본 문자문화

고대 일본이 동아시아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한 시기는 대략 7세기 전후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이다. ‘일본(日本)’이라는 국호가 대외적으로 선양된 시기도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구당서(舊唐書)』에 그 기록이 있듯이 7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고대 일본이 그 이전 단계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사회발전 척도에 도달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표방했다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선진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 집단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물질적, 정신적 진보의 총화를 의미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 과정을 통해 동반된 문화의 진보에는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를 추상적으로 활용하고 개조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신앙과 도덕, 지식, 예술이라는 형태의 고차원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작동시키는 촉매제가 문자와 문헌을 활용한 지적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문명사회로 전개되는 과정에는 문자의 도입과 그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하다. 즉 문자는 어휘를 만들고 문체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적 통일국가를 성립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열도의 사람들이 문자문화를 접촉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동아시아의 소통수단이자 공통 표기문자인 한자가 일본에 전래되기 이전 일본 내 고유의 문자가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헌상으로 보면 13세기에 편찬된 우라베 가네카타(卜部兼方)의 『샤쿠니혼기(釋日本紀)』에 한자가 오진(応神)천황 때 전래되기 이전 시기인 신대에 고유 문자인 ‘화자(和字)’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화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 이유는 고유의 문자로 여겨지는 자료가 나라(奈良)시대 이전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에도(江戸)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때문이다.¹⁾ 또한 ‘히후미(日文)’라는 것은 당시 조선(朝鮮)의 한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위작이라고 밝혀져 한자가 전래되기 이전에 일본열도에 문자문화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沖森卓也, 2009).

다만 상기 문헌에도 일본에 한자가 전래된 시기를 오진(応神) 천황 시대라 한 것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기사를 근거로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상기 문헌에 나타난 한자 전래 기사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승에 가깝다 할 수 있더라도 일본의 문자문화, 즉 한자를 통한 소통과 한문 활용능력의 도입이 고대 한반도를 통해 전래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日本書紀』 오진(応神) 천황기 14년 ‘시세(是歲)’ 기사에는 하타(秦)씨의 조상인 유쓰기(弓月)君, 동 15년에는 아직기(阿直岐)史의 시조인 阿直岐, 동 16년에는 가와치 아야(西文)氏의 시조인 왕인(王仁), 20년에는 야마토 아야(倭漢)直의 조상인 아치(阿知)使主가 일본에 건너갔다는 기사가 이어지며 백제를 비롯한 고대 한반도에서 높은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일본열도에 이입되었다는 것을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모든 도래씨족의 조상이 같은 시기에 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것은 『日本書紀』의 편찬 당시 고대 귀족의 인식에 따라 각색되어 이 시대의 사건으로 첨가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細野順子 1995). 그렇다 하더라도 기사의

1) 이를 흔히 ‘신대문자(神代文字)’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모두 후세의 위작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내용에서 한국계 이주민들이 기나이(畿内)지역의 치수, 토지개발, 기직(機織)에 관련된 선진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고 고대 일본왕조 형성에 공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들 중에는 특히 문장 작성 및 기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마토 아야(東文)氏와 가와치 아야(西文)氏가 포함되어 이들의 활약으로 고대 일본의 문자문화의 도입과 그를 활용한 학문적 지식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한문 작성이 개시된 것은 어떠한 배경에 의한 것일까? 문자는 자연발생적으로 도입되고 자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기능하는 장은 바로 정치 문제라고(神野志隆光 2007)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국가의 형성 과정에 문자를 활용한 문서와 기록 작성이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고대 동아시아 정치체제의 특징을 ‘한자문화권’으로 설명한 니시지마 사다오의 견해에 따르면 고대 동아시아 세계는 국제정치상 압도적인 힘을 가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관계인 책봉(冊封)관계에 의해 역사적으로 성립했으며 책봉체제는 중화사상, 왕화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관계를 말하며 이 체제는 한자를 소통수단으로 한 하나의 문화세계였다(西嶋定生 1983). 그리고 한자문화는 책봉체제를 통해 조선, 일본, 베트남지역으로 전파되며 중국왕조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속에서 수용되고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니시지마의 견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며 중국에서 비롯된 선진문화는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연장되며 한자와 공통의 문장어인 한문에 의한 교양의 기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문화세계로서 동아시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다(神野志隆光 2007). 따라서 그 전파 및 전개 과정에는 앞서도 잠시 언급한 문헌상에 보이는 한국계 이주민들의 활약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자료는 언제부터였을까? 문헌성립 이전에 문자의 사용과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발굴문자이다. 발굴문자는 다른 말로 ‘출토사료’라고 하는데 보통 종이에 기록한 문헌사료와는 달리 발굴조사에 의해 지하에서 출토된 문자자료를 말한다. 그중에는 목간, 칠지문서, 금석문, 문자기와, 토기 등에 새겨진 묵서(墨書) 토기 등이 해당되며 고대 문자문화의 질적, 양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佐藤信 2002).

발굴문자의 성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일본열도에서 문자사용의 첫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타규슈(北九州)지역의 옹관묘에서 발견된 한(漢)나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경(銅鏡)에서 『초사(招辭)』계의 시구와 길상구가 발견된 사례와 ‘貨泉’이라는 두 글자를 주조한 왕망(王莽)의 동전이 쓰시마(對馬)와 후쿠오카(福岡), 야마구치(山口),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등 각지에서 발견된 것이 보고되고 있다(上田正昭 1997).

그 다음으로는 서기 57년 후한(後漢)왕조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도장(金印)에 새겨진 ‘漢委奴國王’이라는 문자를 꼽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일본열도의 사람들이 한자문화에 처음 접촉한 시기는 야요이(弥生)시대부터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도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금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왜노국(奴國)이 한나라의 정치체제하에 들어가 그 제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징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

고대 동아시아 정치 및 외교체제가 기본적으로 문서주의라고 볼 때 문서가 없으면 왕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금도장을 받기 전에 중국 황제에게 미리 상표문을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가 당시 일본열도에도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황제에게 상표문을 한문으로 작성하여 이를 전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石川九揚 2008). 그러나 실제로 역사학계나 고고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당시 일본열도 내부에서 문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이 금도장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동아시아 책봉체제를 주장한 니시지마 사다오도 당시 일본에서 한경(漢鏡)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동경(銅鏡)의 명문(銘文)은 문자로서 인식된 것이 아니라 문양으로 취급한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당시 왜인이 문자를 보긴 했지만 문자문화를 수용

2) 원래 ‘인수(印綬)제도’는 진시황제가 마련한 제도로 인장은 일종의 직제 임명증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장을 받는다는 것은 중국 황제로부터 어느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왕으로 인정받는 정치적 행위로 그를 위해서는 한문으로 작성된 상표문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례였다.

한 것이 아니었다(西嶋定生 2000). 따라서 문자의 전래는 대륙에서 건너간 이른바 ‘도래인(渡來人)’에게 의지했을 가능성이 크며 초기단계 문자의 활용도 일본열도 내부에서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야요이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야마타이(邪馬壹)國에 관련된 내용이 『위지왜인전(魏志倭人伝)』에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초(景初) 3년(239) 12월 위(魏)의 명제(明帝)가 야마타이국 히미코(卑弥呼)여왕에게 ‘親魏倭王卑弥呼’라는 조서를 주고 正始 元年(240)에는 ‘위나라 사신이 조서 및 인수를 들고 왜국에 가서 왜왕을 직접 만나 조서와 각종 하사품을 주자 왜왕은 사신을 통해 상표를 올리며 조운에 답례했다’는 기록이 있다.³⁾ 여기에 ‘상표(上表)’라 명기되어 있는 점과 이를 왜왕이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사신을 통해 전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 왜의 여왕의 상표문이라 해도 이것은 직접 일본인이 작성한 상표가 아닌 외교관계에서 상표문 작성을 수행한 문장 전문가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물은 한반도와 교류 및 소통이 가능한 한국계 이주민일 가능성이 크다(上田正昭 1997). 따라서 당시 일본열도에 설사 문자사용의 기사를 엿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 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명권하에 전개된 문자의 소통과정에서 이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국제관계라는 한정된 장에서 이용된 것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일본열도의 국가나 사회의 성숙과 관계없이 외부에 있었던 특수기호로서의 문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철검 명문과 한문문화

일본열도 내부에서 출토사료 중 단순히 몇몇 문자의 발견차원이 아닌 문자의 조합에 의해 의미를 갖는 문장으로 활용된 가장 이른 사례는 5세

3) <太守弓遵遣建忠校尉梯儁等、奉詔書印綬詣倭國、拜假倭王、并齎詔賜金·帛·錦·鬪·刀·鏡·采物。倭王因使上表答謝恩詔。>, 『魏志倭人伝』, 青空文庫.
http://www.aozora.gr.jp/cards/001477/files/50926_41514.html (2014년 2월 20일 검색)

기에 출토된 유물로 그 대표적인 자료가 ①지바(千葉)현 이나리다이(稻荷台)고분 출토의 철검 명문,⁴⁾ ②사이타마(埼玉)현 이나리아마(稻荷山)고분 출토의 철검 명문,⁵⁾ 그리고 ③구마모토(熊本)현의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에서 발굴된 철도 명문⁶⁾의 세 가지 상감 명문이다. 이들 철제 도검 명문이 가지는 의미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비슷한 시기에 일본열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 중 단순히 몇몇 한자가 아니라 적게는 12자에서 많게는 115자에 이르는 다수의 문자가 발견됨으로써 일본열도에서 초기단계의 한문 문장 사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이다(森下章司 2009). 먼저 ①의 철검이 발견된 고분의 축조 시기는 대략 5세기 중엽에서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거기서 발굴된 명문에 ‘왕사(王賜)’라는 표기가 있다고 하여 ‘왕사명철검’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철검은 모두에 연호와 간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범용적인 하사품의 하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佐藤長門 2004). 특히 ‘왕사’라는 명문이 뒷부분의 문장보다 2글자 올려 쓰는 귀인에 대한 서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②의 철검 명문은 왜(倭)의 대왕권력과 그에 결부되는 지방호족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왜국의 범위가 관동지방에서 규슈(九州) 북부지

-
- 4) 1976년에 직경 약 27미터, 2단 축성으로 보이는 원분형태의 이나리 제1호분에서 발굴된 3자루의 철검 중 하나로 1978년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한 X선 조사를 통해 은상감문자가 확인되었다. <앞면: 「王賜□□敬□(安)」, 뒷면: 「此延□□□□」>
- 5)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 고분(길이 120미터의 전방후원분)에서 1968년 무구, 마구, 신수경, 곡옥과 함께 출토된 철검으로 길이 약 73.5센티미터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115자의 상감 명문이 확인되었다. <앞면: 「辛亥年七月中記乎獲居臣上祖名意富比坵其兒多加利足尼其兒名弓已加利獲居其兒名多加披次獲居其兒名多沙鬼獲居其兒名半弓比」, 뒷면: 「其兒名加差披余其兒名乎獲居臣世々爲杖刀人首奉事來至今獲加多支齒大王寺在斯鬼宮時吾左治天下令作此百練利刀記吾奉事根原也」>
- 6)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길이 62미터의 전방후원분)에서 출토된 칼은 후원부의 석관에서 금동제 관모와 이식(耳飾), 신수경과 다양한 무구, 마구와 동시에 출토된 14자루의 대도 중 하나이다. 길이는 약 90센티미터 정도로 발굴 당시 은상감명문 75자가 확인되었다. <「治天下獲□□□齒大王世奉事典曹人名无利弓八月中用大鐵釜并四尺延刀八十練九十振三寸上好刊刀服此刀者長壽子孫洋々得□恩也不失其所統作刀者名伊太和書者張安也」> 또 문자 외에도 말, 꽃, 어류, 조류무늬가 상감되어 있었다.

방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자료로 발굴 당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佐藤信 2002). 그런데 이 명문 중 ‘辛亥年 七月中’에서 보듯이 제작시기 바로 뒤에 ‘中’이라는 표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내용 면에서 보면 ‘오와케(乎獲居)臣이라는 족장이 ‘와카타케루(獲加多支鹵)’ 대왕의 천하통치를 무관(武官)으로서 도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와카타케루’가 중국 『宋書』에 나오는 ‘왜왕무(倭王武)’이며 『古事記』, 『日本書紀』에 대입하면 ‘유랴쿠(雄略)천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문학의 권위자 시라카와 시즈카는 이 철검 명문의 특징에 대해 순수 한문식 문장이 아니라는 점, 지명과 인명에 음가나의 표기가 있다는 점, 특히 문중에 등장하는 ‘오히코’ 등의 인명이 『日本書紀』에 인용된 백제 기록에 보이는 ‘나카히코’, ‘사치히코’ 등과 유사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명문은 한문 해독능력을 갖추고 일본어를 한문으로 적용시켜 쓸 수 있는 백제인이 작성한 것이며 당시 일본인은 문자를 배우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다(白川靜 2003). 즉 상감 명문에 기여한 한국계 이주민의 활약상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③의 도검 명문에 대한 해석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확인된 문자에 ‘治天下...大王世’, ‘八月中’, ‘書者 張安也’라는 표기가 새겨져 있어 실제 명문 작성자를 표기한 유일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張安’이란 이름은 중국 또는 한반도계의 성(姓)으로 추정되며 이 ‘張’姓이 백제의 대중외교의 사자의 성으로서 종종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자가 같은 계보의 한국계 이주민으로 추정하고 있다(田中史生 2005).

또한 시기 표기 뒤에 ‘中’이라는 글자는 앞서 언급한 이나리아마 철검에도 보이는 서법이며 이는 고구려 및 신라의 용례에도 보이고 일본 내에서는 호류지(法隆寺) 석가여래상 광배명문에 ‘三月中’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록자의 습관이 고대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말한 불상이 도래계인 구라쓰쿠리노 도리(鞍作止利)가 만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日本書紀』에 인용된 백제사료 관계를 이용했다고 여겨지는 문장에 역시 ‘中’이라는 서법이 권9, 권10에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철검 명문의 문장 역시 한국계 이주민이 작성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이처럼 철검 명문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일본열도의 지방 수장들이 문자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 시기에 문장을 활용한 문헌이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 철검 명문들은 전사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점에서 논란도 적지 않지만 일본열도에 이미 그 이전에 이러한 한문을 쓸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견해와 당시 일본인은 그런 기술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 써서 바친 혹은 일본인 중에 전문가가 쓴 것이라 주장하여 문자가 내부로부터 성숙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철검에 문자를 새겨 넣는 상감 기법은 한반도의 기술이 일본보다 선행하고 있었고 일본의 도검에 모여지는 상감명도 직접적인 연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볼 때 또 이처럼 금속제품 이외에서의 당시 문자의 사용례는 불명하고 한반도로부터 금속문의 전파와 더불어 문자의 사회적 수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森下章司 2009).

따라서 새로운 상감기법과 더불어 문자의 용법과 금속문적인 지식도 상감 등 신기술과 함께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감 명문에 보이는 문자의 용법의 특징을 보면 문자지식을 가진 복수의 서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것으로 대외적인 비교가 가능한 자료가 바로 『송서(宋書)』 이만전(夷蠻傳) 왜국조에 보이는 왜의 5왕이 10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했다는 기사이다. 왜왕무의 상표문을 상세히 보면 무의 상표문이 중국의 사서 『진서(晉書)』에 유사어구가 많으며 또한 472년 백제왕 경(慶)이 북위에 보낸 상표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의 양국의 상표문은 동일한 백제관인 또는 망명 백제인에 의해 기초된 것으로 추정된다(內田清 1996).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듯 유라쿠(雄略) 天皇 8년 2월 기사와 2년 10월 기사에는 대왕 측근에서 기록을 담당한 인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야마토의 다케치(武市)郡 내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주민들이고 유라쿠 천황 12년 4월 기사를 보면 이들을 오(吳)나라에 출사시켰다는 기사로 본다면 당시 대외교섭에 활약한 이들은 대왕 측근의 ‘후히토(史)’라 불리는 문서관리자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세기경 일본열도 내에서의 문자사용은 한국계 이주민에 의한 것이고 특

히 문서 기록의 작성, 재정, 외교에 필요한 문필 전문가는 ‘후히토베(史部)’에 소속된 ‘후히토’였다(石母田正 1962). 또한 왜왕 ‘찬(贊)’이 사마조달을 파견하여 상표를 바치고 물건을 헌납했다는 문장은 한자를 다루는 왜왕권의 문장기술의 우수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까지 발견된 한자가 기록된 고고유물을 아무리 총동원해도 이 같은 수려한 문장은 볼 수 없으며 이는 왜국의 문자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것이라는 점(田中史生 2005)에 주목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조달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한국계 이주민이라 보는 견해(上田正昭 1993)와 일본열도에 문자의 도입에서 나라시대까지 문자문화의 발생 및 전개과정에서 볼 때 한국계 이주민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은 백제인이 쓴 것이라고 단언한 시라카와 시즈카(白川靜)의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철검 명문이 등장한 5세기와 『日本書紀』 유랴쿠 천황기의 많은 한국계 이주민의 도일(渡日) 기사가 말하는 것은 고대 일본이 동아시아와 활발한 국제교류가 시작된 시기에 일본열도로 건너간 많은 한국계 이주민들의 활약을 그린 것으로 야마오 유키히사는 이 시기를 ‘이주민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고대 일본 국가와 문명형성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山尾幸久 1983). 그리고 문서행정을 담당한 후히토베(史部) 집단의 공헌은 야마토 조정의 기초가 되었고 만일 이 시기의 한국계 이주민이 없었다면 고대 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진전은 100년 단위로 늦어졌을 것이다(井上滿郎 1999).

IV. 한자문화의 확산과 전개

지금까지 한자를 바탕으로 한 한문지식의 활용은 일본열도 내에서의 소통수단이기보다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6세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6세기에 해당하는 발굴문자 자료가 매우 적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의 사용이 인간의 지적 행동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문자의 내부화 진행과정을 거쳐 일본열도 전체에 널리 문자가 침투하고 한문에 의한 서기

언어의 보급과 학문 지식의 보급과정에 기여한 시기는 6세기로 볼 수 있으며 그 시기의 한국계 이주민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게이타이(繼體) 천황기에 보인다. 『日本書紀』 게이타이 천황 즉위전기 기사를 보면 “天皇은 성장하여 선비(士)를 사랑하고 현자(賢)를 예우하면서 그의 지지가 잘 통했다.”⁷⁾고 하는 기사 원문에 ‘意豁如也’라는 표현이 있다. 이 문장은 『史記』 「高祖紀」와 『芸文類聚』 「帝王部」에도 보이는 표현으로 게이타이 천황 기사의 작성에 중국의 고전적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백제에서 유학을 적극적으로 이입한 기사가 게이타이 7년 6월 기사에 백제가 사미문귀(婁彌文貴)將軍과 주리소니(州利即爾)將軍을 보내 호즈미(穗積)臣 오시아마(押山)를 따라 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를 보내왔다는 기사⁸⁾가 있는데 오경박사의 파견은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백제의 영토 확장의 대가로 보낸 것을 의미하며 이와나미판 주석서에는 이것을 문화수입의 면에서 비약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또한 3년 후인 10년 9월 기사에 역시 오경박사 아야(漢) 고안무(高安茂)를 보내며 博士 단양이(段楊爾)를 교체시켰다는 기사가 보이고⁹⁾ 긴메이(欽明) 천황 15년 2월에 백제는 오경박사 왕유귀(王柳貴)를 고덕 마정안(馬丁安)으로 대체하고 승려 담혜(曇慧) 등 9인을 승려 도심(道深) 등 7인과 교체하고 별도로 易博士·曆博士·醫博士·採藥師·樂人 들을 보냈는데 모두 백제의 요청에 따라 바꾼 것이라는 기사¹⁰⁾가 보인다. 그 후 13년에는 주지하다시피 백제로부터 일본에 불교가 공전되는 기사가 바로 이어지고 있다. 게이타이 천황과 긴메이 천황 재위시기를 보통 6세기경이라 할 때 일본열도에 유학과 불교, 의학 등의 이입, 그리고 새롭게 많은 학

7) <(前略)天皇壯大、愛士禮賢、意豁如也。>

8) <◎七年夏六月、百濟遣婁彌文貴將軍·州利即爾將軍、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9) <○秋九月、(前略)別貢五經博士漢高安茂、請代博士段楊爾。依請代之。>

10) <○二月、百濟遣下部梶率將軍三貴·上部奈率物部烏等、乞救兵。仍貢德率東城子莫古、代前番奈率東城子言。五經博士王柳貴、代固德馬丁安。僧曇慧等九人、代僧道深等七人。別奉勅、貢易博士施德王道良·曆博士固德王保孫·醫博士奈率王有俊陀·採藥師施德潘量豐·固德丁有陀·樂人施德三斤·季德已麻次·季德進奴·對德進陀。皆依請代之。>

자, 승려 등의 도일과 맞추어 한문에 의한 학습 분야는 다기에 걸치고 학습자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게이타이 천황이 오진 천황의 5세손이라고 하는 계보로 비추어 볼 때 이 시기는 문자문화의 면에서도 오진 천황의 문화를 계승하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인 중에는 문자, 즉 한자는 극히 일부에서만 알고 있었으며 6세기 초 백제가 일본에 오경박사를 보낸 것을 계기로 조정 내 지식인층의 한적 독해력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또 불교공전 무렵 일부 일본인이긴 하지만 그들의 지적 수준은 불교의 철학사상을 기록한 경전을 읽고 독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大橋一章 1997).

한편 『日本書紀』 비다쓰(敏達) 천황 원년 5월 기사를 보면 천황이 왕자와 대신들을 고구려 사신이 머물고 있는 상락관(相樂館)에 파견하여 고구려에서 보낸 물품 점검 후 이를 왕도로 운반시켰다. 그런데 보내온 물품에는 고구려의 문서가 함께 있어 대신으로 하여금 후히토들에게 해독시켰으나 3일이 지나도록 해독하지 못했다. 그런데 ‘후네노후비토(船史)’의 조상 ‘왕진이(王辰爾)’라는 자가 능숙하게 해독하자 천황이 왕진을 크게 칭찬한 후 천황의 곁에 둔 반면 해독하지 못한 후히토들은 크게 질책 받았다는 기사가 있다.¹¹⁾ 상기 기사는 ‘후네노후비토’의 탁월한 문서 해독 능력과 지혜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앙 조정에서 문자 및 문헌지식을 활용하여 문필, 기록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후히토(史)’의 활약을 전한 것으로 이들은 주로 ‘한국계 이주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자손 대대로 세습하며 조정에 봉사하는 씨족이었다(加藤謙吉 199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고구려인이 쓴 문장이 정격 한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후히토들이 해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沖森卓也 2009).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왕진이(王辰爾)’는 한시집(漢詩集)인 『가이후소(懷風藻)』의 서문에 “오진(応神) 天皇 때에 왕인(王仁)이 몽매를 밝혔고 왕진은 비다쓰 천황 시대에 교학의 기반을 마련하여 마침내 세

11) <○五月壬寅朔、天皇問皇子與大臣曰、高麗使人、今何在。大臣奉對曰、在於相樂館。(中略)乃遣群臣相樂館、檢錄所獻調物、令送京師。○丙辰、天皇、執高麗表疎、授於大臣。召聚諸史、令讀解之。是時、諸史、於三日內、皆不能讀。爰有船史祖王辰爾、能奉讀釋。由是、天皇與大臣俱爲讚美曰、勤乎辰爾。懿哉辰爾。汝若不愛於學、誰能讀解。宜從今始、近侍殿中。既而、詔東西諸史曰、汝等所習之業、何故不就。汝等雖衆、不及辰爾。(下略)>(『日本書紀』下, 133-135)

인들은 공자 학풍에 접하며 유학을 촉진시켰다.”(小島憲之 校注 1964)고 평가받는 인물로 그의 지식과 학문에 대한 명성을 엿볼 수 있다. 왕진은 『쇼쿠니혼기(續日本紀)』에 고조부는 백제의 귀수왕(貴須王)의 손자인 진손왕(辰孫王)으로 오진 천황시대에 일본에 건너갔다는 기록(青木和夫 外 3人 1998)으로 볼 때 그 출신이 한국계 이주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왕진이가 백제계 인물답게 변형체 한문의 해독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고대 한반도의 속한문 형식의 문장표기가 일본 열도에도 확산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기사라 볼 수 있다.

V. 문자문화와 동아시아 문명 수용

고대 일본에서 문자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방에서도 한자문화가 통용되고 그에 따른 행정과 문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는 7세기 후반 이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이 율령제도를 도입하여 동아시아 문명을 적극 수용하고 중앙과 지방을 통합한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운영을 위한 문서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며 따라서 한자문화는 중앙관리뿐만 아니라 지방세력에게도 필수적인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율령제도 자체가 한자와 한문에 의한 교양지식을 익힌 관인 및 하급관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대량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과 조세징수는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출토사료의 관점에서 보면 아스카(飛鳥)지방에서는 67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이 7,800점이나 출토되는 등 고대 목간의 대부분은 7세기 후반부터 9세기 초두에 해당된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木簡學會 2010).¹²⁾ 즉 목간에 의해 그 시기 지방에서도 문자를 활용하며 행정기구를 운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한자문화의 지방 파급과 확산이 7세기 후반 단기간에 급속하게

12) 출토된 목간은 출토 지점에 따라 ‘왕도(王都)목간’과 ‘지방(地方)목간’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왕도목간’은 나니와(難波), 아스카(飛鳥), 후지와라(藤原)宮, 헤이쥬(平城)京, 헤이안(平安)京 등 고대 왕도 중심지였고 ‘지방목간’은 규슈(九州), 서일본지역, 시코쿠(四國) 등 지방의 국부(國府), 군가(郡家), 역가(驛家)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도호쿠(東北)지방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전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한자문화 수용과 전개는 단순한 한자문화만이 아니라 불교, 유교, 율령법제, 선진적인 기술체계, 문물 등과 혼연일체가 된 선진문화로 수용된 것이다(佐藤信 2006).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율령국가 시스템이 확립된 배경에는 한국계 이주민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7세기 후반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격동, 즉 수나라의 멸망에 이은 당나라의 등장, 한반도 삼국전쟁으로 인해 왕족과 귀족을 포함한 지식계층이 대량으로 일본에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들은 일본 각지에 정주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문화적 수준이 높은 승려들도 대거 포함되어 이들이 준 문화적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日本書紀』의 기록에 따르면 7세기 초반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이후 고구려와 백제에서 불교와 유교를 배우는데 그중에서 중앙조정에서 활약한 ‘다카무코노 후히토(高向史)¹³⁾’라는 인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인물은 『日本書紀』 스이코(推古) 천황 16년 9월 기사에는 ‘다카무코 아야히토 겐리(高向漢人玄理)’라고 소개하고 있는데¹⁴⁾ 백제계 이주민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이다(平野邦雄 1993). 또한 이 인물은 귀국 후 다이카(大化) 원년에 ‘구니노하카세(國博士)’라는 자리에 오른다. ‘구니노하카세(國博士)’는 야마토 조정에 직속 배치되어 중앙 정치에 관여한 박사라는 주장(東野治之 1996)이 있는가 하면 고대 조정에서 국정 일반의 자문기관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직책으로 보기도 한다(坂本太郎 1988). 또는 후한(後漢)시대 이후 경학 중심의 학술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게이타이(繼體) 천황 때 백제가 보낸 오경박사의 계통을 잇는 직책이라 설명하는 견해(井上光貞 1985)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정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직책으로 보이며

13) ‘다카무코 겐리(高向玄理)’ 또는 ‘구로마로(黑麻呂)’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로 쇼토쿠(聖德)태자의 명을 받아 수(隋)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조메이(舒明) 천황 12년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14) <○辛巳、唐客裴世清罷歸。則復以小野妹子臣爲大使。吉士雄成爲小使。福利爲通事。副于唐客而遣之。爰天皇聘唐帝。其辭曰、東天皇敬白西皇帝。使人鴻臚寺掌客裴世清等至、久憶方解。季秋薄冷。尊何如。想清愈。此卽如常。今遣大禮蘇因高·大禮乎那利等往。謹白不具。是時、遣於唐國學生倭漢直福因·奈羅譯語惠明·高向漢人玄理·新漢人大罔、學問僧新漢人日文·南淵漢人請安·志賀漢人慧隱·新漢人廣濟等、并八人也。>(『日本書紀』下, 193)

고대 중국 또는 한반도의 고대국가의 조정에서 황제의 정치고문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대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 및 한반도의 선진문화를 수입하기 위해 고도의 문필력을 바탕으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자를 ‘國博士’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국정자문이나 정치고문의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를 계기로 일본은 원시적인 체제에서 문명적인 수당식의 중앙집권율령국가로 거듭났던 것은 그 개신에 직접 관여한 국박사의 역할이 크다(今井啓一 1974).

또한 고교쿠(皇極) 천황 4년 ‘國博士’에 임명되기 이전 상대 문헌에 보이는 ‘博士’는 모두 18예가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이들이 모두 백제계 이주민들이었다(直木孝次郎 2005). 이러한 사실에서 비추어 볼 때 고대 일본의 중앙조정에서 문자 해독능력과 문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자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계 이주민 또는 그 후예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한국계 이주민들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진 시기는 다이카(大化) 개신 전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대 일본사회에서 한국계 이주민 또는 그 후손들이 중앙에서 한자문화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선진문명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대 일본의 정신세계 형성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 문자문화 확산과 전파에도 한국계 이주민들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비타쓰(敏達) 천황 13년 9월 기사에 보인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제에서 녹심(鹿深)臣이라는 자가 미륵석상 1체를 가져오고 사에키(佐伯)連도 불상 1체를 가져왔다는 기사 바로 뒤에 이어지는 ‘시세(是歲)’기사에 소가 우마코(蘇我馬子)가 그 불상 2구를 구라베 스구리 사마달(鞍部村主司馬達)等·이케베(池邊)直 히다(氷田)라는 자를 파견하여 전국에서 수행자를 찾았는데 하리마(播磨)國에서 환속한 高麗의 혜변(惠便)이라는 자를 찾아 大臣이 이 자를 스승으로 삼았다¹⁵⁾는 내용이다.

문자를 기록하고 응용하는 서기(書記)문화는 보통 사회관습에 따라 문

15) <○秋九月、從百濟來鹿深臣、[闕名字。] 有彌勒石像一軀。佐伯連、[闕名字。] 有佛像一軀。◎是歲、蘇我馬子宿禰、請其佛像二軀、乃遣鞍部村主司馬達等·池邊直氷田、使於四方、訪覓脩行者。於是、唯於播磨國、得僧還俗者。名高麗惠便。大臣乃以爲師。> (『日本書紀』下, 14)

자를 조합시켜 정보를 기록하고 축적한 문화를 말하고 그 서기문화가 발달하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식자층이 형성되며 그들은 주로 정치에 관련된 지배계급, 승려, 학자 등이라고 할 때(松岡正剛 2008)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승려들은 선진지식을 몸에 익힌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열도 각지를 다니며 불경을 설교하기 위해 지방에도 한자문화를 전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대 일본의 견당사(遣唐使)는 669년에 파견 이후 702년까지 30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보인다. 그런데 700년 건립된 나스고쿠소(那須國造) 碑를 보면 명문 중에 영창(永昌) 元年(689)라는 원호가 새겨져 있다. 永昌이라는 연호가 측천무후(則天武后)시대인 689년에 해당되고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만 사용된 연호였다고 하면 이 기간은 견당사의 공백 기간과 겹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견당사로부터 얻은 정보라기보다는 당시 신라와의 교류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연호의 정보가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佐藤信 2002). 즉 신라에서 일본에 건너간 지방에 정주한 사람들이 이러한 연호나 석비를 세우고 비문을 작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문화지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한국계 이주민과 그들이 갖고 있던 문자문화가 그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VI. 고대 일본의 문자문화와 한국계 이주민

2차 대전 이후 고대 일본열도에 이주하여 정착한 세력을 이른바 ‘귀화인’으로 명명하며 이들을 외래인이 아닌 일본인의 직계 조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활약상을 높이 평가한 세키 아키라(關晃)는 이들이 가져온 기술, 지식이 당시 일본의 것에 비해 매우 고차원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중시했다(關晃 1996). 나아가 그는 이들에 대해 고대 일본문화의 지류가 아닌 분류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전의 이른바 ‘귀화인’ 관념을 크게 전환시켰다.¹⁶⁾

16) 세키 아키라 이전에도 ‘귀화인’들이 고대 일본문화에 기여한 외래문화의 전달자

또한 나라(奈良)시대에 이들은 언어, 풍속 모두 고유 일본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착되어 조정으로부터 관리 또는 무인의 신분을 얻어 국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했다(和辻哲郎 1972). 이처럼 고대 일본에서 이들은 정치지도자로 활약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대 일본열도에 건너가 정착한 한국계 이주민의 이주 물결은 기원전 2세기, 5세기 전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 그리고 7세기 후반이라는 4시기로 구분된다(上田正昭 1993). 또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5세기 후반에서 말기, 7세기 후반으로 크게 3시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加藤謙吉 1998). 중요한 것은 이러한 4시기 또는 3시기가 모두 대량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한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집단적인 이주 물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일본열도의 문자문화의 도입과 확산과정과도 중복된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고대문화가 성립하는 첫째 조건은 한반도 및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환경에 있고 그로 인해 고대 일본은 동아시아 대륙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와 그를 통해 전파된 문명은 일본문화의 수용성과 퇴적성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岡正雄 1972). 특히 한반도에서 받은 영향은 구석기시대부터 나라시대까지 무단하게 이어졌고 그 시기의 문화는 한국문화의 흔적을 빼면 매우 공허한 것이며 심지어 ‘교류’라는 말보다 ‘영향’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齋藤忠 1981).

따라서 고대 일본 문헌에 등장하는 ‘도래(渡來)’ 또는 ‘귀화(歸化)’로 표기된 대부분의 해외 이주자들은 그 원향이 대부분 한국에서 건너간 이주민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인식을 확대시켜 본다면 이들은 일본의 고대 정치 및 문화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세력으로 아마토 조정 내의 지식계층으로 뛰어난 한문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및 외교 문서 기록 작성 등에 커다란 영향을 준 외교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진적인 문자, 학문, 기예 등을 바탕으로 조정에 기용되어 세습적으로 그 지위와 직무를 자손에 전한 자들이었다(津田左右吉

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향이 강했다.

1995). 상대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서라 할 수 있는 『日本書紀』가 편찬되기까지는 ‘제기(帝紀)’와 ‘구사(旧辭)’를 비롯한 각 씨족들이 문헌형태로 보유하던 조상 전승, 지방 전승, 정부 기록, 개인 수기(‘伊吉連博德’, ‘安斗宿禰智德日記’), 寺院의 연기, 백제관련 사서, 즉 ‘백제기(百濟紀)’, ‘백제본기(百濟本紀)’, ‘백제신찬(百濟新撰)’, 그리고 『위지왜인전(魏志倭人伝)』 등 다양한 한적(漢籍)문헌을 활용하거나 참고하고 있다(坂本太郎 1988). 이러한 다양한 원전의 활용은 상대 문헌으로 기록되는 과정에 여러 방대한 문헌을 이해하고 습득한 지식계층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백제관련 문헌은 서명만 있기는 하지만 상대 문헌 찬록과정에 문필력이 뛰어난 백제계 이주민 후손들의 활약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어법상의 특징을 한 가지 예를 들면 『古事記』의 저자라 알려져 있는 야스마로(安万呂)의 묘지로 추정되는 묘비명에 ‘死之’라는 한자표기는 한문에는 없는 어법으로 백제식 한문의 특징이다(白川靜 2003). 이는 일본인이 직접 문필을 잡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그렇게 본다면 일본의 상대 문헌이 성립되기 이전 가타리베에 의해 구전된 전승은 한국계 이주민의 붓을 통해 문자와 만나 그들이 소유한 한적을 참고하며 『古事記』 또는 『日本書紀』의 문체로 기록된 것이다(小島憲之 1962).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상대 문헌이 편찬되는 8세기 초까지는 적어도 한국계 이주민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문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가 한반도에서 꽃핀 고대문화 섭취의 전성기였고 이 시기에 일본은 중국문헌을 향수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었지만 그 향수의 직접적인 원천은 한반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상대 문헌을 대표하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성립은 고대 일본 지식인들의 문학적 상상력 및 정신문화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것은 특히 천황가의 존엄성을 그리고자 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당시 중국 및 고대 한국에서 전래된 고전문헌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씨족들이 보유하던 다양한 원전의 활용, 그리고 찬록자들의 풍부한 교양과 문장력을 바탕으로 성립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VII. 맺음말

문자가 성립하면 인간의 표현력, 인식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문자는 의미의 윤곽을 만들고 음을 정함으로써 세계를 분명히 구분해간다. 문자가 탄생됨으로써 무문자단계와는 비월한 역사는 시작되고 입체적으로 문자의 우주가 형성되어 거기에서 일본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지금까지 발굴문자와 문헌에 나타난 일본의 문자문화의 도입과 한문의 활용과 전개과정, 나아가 상대 문헌의 성립과정에 나타난 한국계 이주민의 활약상을 살펴보았다. 발굴문자의 성과 및 문헌상에 나타난 일본열도에서 한자문화에 처음 접촉한 시기는 야요이(弥生)시대부터라 할 수 있지만 당시 일본열도 내부에서 문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도 문자로서 인식된 것이 아니라 문양으로 취급한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문자문화는 한국계 이주민에게 의지했을 가능성이 크며 초기단계 문자의 활용도 일본열도 내부에서 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일본열도에 설사 문자사용의 기사를 엿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 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명권하에 전개된 문자의 소통과정에서 이용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국제관계라는 한정된 장에서 이용된 것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일본열도의 국가나 사회의 성숙과 관계없이 외부에 있었던 특수기호로서의 문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철검 명문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일본열도의 지방 수장들이 문자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말해주지만 이 시기에 문장을 활용한 문헌은 발견되지 않고 전사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서법과 문자를 새겨 넣는 상감 기법으로 볼 때 일본인 중에 문자문화가 내부로부터 성숙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도입된 것을 시사하며 그 직접적인 연결은 한반도에 있었다고 볼 때 새로운 상감기법과 더불어 문자의 용법과 금석문적인 지식은 상감 등 신기술과 함께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문자문화가 지방에까지 통용되고 그에 따른 행정과 문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는 7세기 후반 이후라 할 수

있다. 출토사료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목간의 대부분이 7세기 후반부터 9세기 초두에 해당된다. 문제는 한자문화의 지방과급과 확산이 7세기 후반 단기간에 급속하게 전개된다는 점과 단순한 한자문화만이 아니라 선진적인 문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율령국가 시스템이 확립된 배경에는 한국계 이주민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문헌상에 나타난 고대 일본이 중국과 직접적인 통교가 시초는 스이코(推古) 천황시기로 수나라에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를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문화의 중심지인 중국의 우수한 문명을 직접 수용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의 문화 유입은 주로 한반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며 일본 고대문화의 창조자는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에 정착한 한국계 이주민들의 활약과 이들의 지적 능력과 정신세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일본사회에서 문자의 활용과 그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확산과 전개에는 한국계 이주민과 그 후손의 역할이 크다. 한국계 이주민들은 문서 기록, 조세 징수, 또는 외교문서의 취급 등 실무적인 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야마토 조정 내에서 문자 해독능력과 문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자문과 고대 정신세계의 형성과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으며 따라서 문자의 도입 이후 고도의 문자 활용 능력과 지식, 그리고 문장력을 지닌 한국계 이주민의 활약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

- 日本古典文學大系67 (1974). 『日本書紀』上.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68 (1975).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1 (1980). 『古事記·祝詞』. 岩波書店.
青木和夫 外 3人 (1992). 『續日本紀 5 (新日本古典文學大系16)』. 岩波書店.
小島憲之校注 (1964). 『懷風藻·文華秀麗集·本朝文粹(日本古典文學大系69)』. 岩波書店, p. 58.
石母田正 (1962). “古代史概説.” 『岩波講座·日本歴史 1』. 岩波書店, p.24.
小島憲之 (1962). 『上代日本文學と中國文學(上)』. 塙書房, p. 82.
和辻哲郎 (1972). 『新稿·日本古代文化』. 岩波書店, p. 138.
岡正雄 (1972). “日本文化成立の諸條件.” 『日本民俗大系 2』. 平凡社.
今井啓一 (1974). 『歸化人』. 綜芸舎, p. 6.
齋藤忠 (1981). 『古代朝鮮文化と日本』. 東京大學出版會, p. 2.
西嶋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p. 399.
水野祐 (1985). 『日本神話を見直す』. 學生社, p. 35.
井上光貞 (1985). 『古代世界の再發見(井上光貞著作集 第6卷)』. 岩波書店, p. 405.
坂本太郎 (1988). 『大化改新(坂本太郎著作集 6 卷)』. 吉川弘文館, pp. 154~155.
坂本太郎 (1988). 『六國史(坂本太郎著作集 第三卷)』. 吉川弘文館, pp. 51~59.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pp. 89-95.
平野邦雄 (1993).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p. 110.
上田正昭 (1993). 『歸化人-古代國家の成立をめぐる』. 中公新書 70. 中央公論社, pp. 36-40.
細野順子 (1995). “奈良時代にむかえて一渡來人の波、その斷面.” 『文學芸術』. 第19号. 共立女子大學文學芸術研究所, p. 124.
加藤謙吉 (1995). “史姓の成立とフミヒト制.” 『日本古代の社會と政治』. 吉川弘文館, p. 3.
内田清 (1996).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6号.
東野治之 (1996). 『長屋王家木簡の研究』. 塙書房, pp. 240~241.
關晃 (1996). 『古代の歸化人(關晃著作集 第三卷)』. 吉川弘文館, p. 5.
上田正昭 (1997). “漢字文化の受容と展開.” 『古代日本と渡來の文化』. 學生社, pp. 14-21.
大橋一章 (1997). 『飛鳥の文明開化』. 歴史ライブラリー12. 吉川弘文館, p. 6.

- 加藤謙吉 (1998). 『秦氏とその民』. 白水社, p. 24.
- 井上満郎 (1999). 『古代の日本と渡來人-古代史にみる國際關係』. 明石書店, p. 47.
- 西嶋定生 (2000). 『古代東アジア世界と日本』. 岩波書店, p. 127.
- 佐藤信 (2002). 『出土史料の古代史』. 東京大學出版會, pp. 3-4, 72.
- 白川靜 (2003). 『桂東雜記 I』. 平凡社, pp. 25~26.
- 佐藤長門 (2004). “有銘刀劍の下賜・顯彰”, 『文字と古代日本 1』, 吉川弘文館, p. 29.
- 田中史生 (2005). 『倭國と渡來人-交錯する「内」と「外」』. 吉川弘文館, pp. 78-98.
- 直木孝次郎 (2005). 『日本古代氏族と國家』. 吉川弘文館, p. 230.
- 佐藤信 (2006). “漢字文化の受容と學習.” 『文字と古代日本 5』. 吉川弘文館, p. 196.
- 神野志隆光 (2007). 『漢字テキストとしての古事記』. 東京大學出版會, pp. 3~8.
- 平野邦雄 (2007).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pp. 8~9.
- 石川九楊 (2008). 『中國文化百華(第一卷)・漢字の文明 仮名の文化』. 農産漁村文化協會, p. 14
- 松岡正剛 (2008). 『白川靜・漢字の世界』. 平凡社, pp. 6~7.
- 森下章司 (2009). “金石文の伝播と古代日本.” 『漢字文化三千年』. 臨川書店, pp. 57-61.
- 沖森卓也 (2009). 『日本古代の文字と表記』. 吉川弘文館, p. 58.
- 木簡學會 (2010). 『木簡から古代がみえる』. 岩波新書 1256. 岩波書店, p. 15.

| 논문투고일 : 2014년 02월 28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3월 04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3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1 (2014)

A Study of the Chinese character development and Culture in Ancient Japan and Korean immigrants

Chang-Soo Lee

(Dept. of Japanese, Kyunghee Univ.)

This paper classifies the introduction of culture of Chinese character into ancient Japan based on time. Furthermore, this searches the Japanese's level of knowledge appeared by excavated words and ancient literatures and the action state of Korean immigrants descent thought to be joined in formation of Japanese text culture directly.

First, the text culture of Japan before the ancient times is used in the progress of communication of Chinese character under the East Asian cultural sphere around China or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may assume that as the outside special symbols regardless of the maturity of country and society in the Japanese Islands, this text culture had been used only a limited space like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from excavated historical records and literatures, we can say the period that text culture spreads in local and developed in earnest was after the late 7th century. Also, in the process of Chinese character's rapid diffusion in local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culture of Chinese character and the East Asian's advanced civilization mixed as one and accepted together. This tells that immigrants of Korean descent played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operational function but also in mental formation process i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based on learning.

- Key words: Kojiki, Nihonshoki, Korean Immigrants, Culture of Chinese Character, Ancient Japan